정책
돋보기
4

감축 목표와 출자를 묶은 공기업 기후협약

독일 베를린주 | 홍남명 통신원

베를린주에서는 2026년 1월 주정부와 주요 주 공기업 22곳이 기후협약인 클리마팍트 2025－2030(Klimapakt 2025－2030)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주정부 소유 기업들의 기후보호 조치, 배출량 감축 및 투자를 체계적으로 통합함. 공기업별로 배출량을 산정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기후투자 계획을 세우고, 주정부는 보조금이 아닌 소유주로서 자기자본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약 23억 유로의 자기자본을 출자할 계획. 목표 달성 상황은 주정부 출자기업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

배경: 법정 감축 목표와 기후협약 클리마팍트 2025–2030

⊙ 베를린 기후보호·에너지전환법(EWG Bln)은 CO_2 배출을 1990년 대비 2030년 70%, 2040년 90%, 2045년 95% 줄이도록 규정함

- 2022년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약 720만 톤을 더 줄여야 하며 2045년까지 약 1,450만 톤의 CO_2를 추가로 감축해야 함
- 베를린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정부 소유 공기업과 협력하고자 하며 이는 공기업의 배출량이 베를린의 CO_2 배출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
- 베를린주 공기업은 2018 회계연도부터 독일 지속가능성 코드(Deutscher Nachhaltigkeitskodex, DNK)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왔으며, 협약은 향후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이 도입되면 배출 데이터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봄

⊙ 2026년 1월에 베를린 주정부는 주요 공기업 22곳과 기후협약인 클리마팍트 2025－2030을 체결함

주요 내용 1: 배출량 확인, 기업별 목표 설정과 달성 방식

⊙ 배출량 확인: 2024년 주 공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주요 공기업의 CO_2 배출량을 산정함

- Scope 1: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 Scope 2: 구매한 전기와 열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 / Scope 3: 공급망이나 구매제품·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량(협약은 원칙적으로 2022년을 기준연도로 삼음)
- 다만 Scope 3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예외적인 경우에 집계됨
- 베를린 지역난방공사(Berliner Energie und Wärme, BEW)는 베를린 1차 에너지 소비(발생원 기준)에 따른 CO_2의 약 35%를 배출
- 나머지 주요 공기업은 연 약 170만 톤을 배출하며, 베를린 전체 소비자 기준 배출(약 1,500만 톤)의 약 11%에 해당

⊙ 기업별 목표 설정: 공기업마다 자체 기후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예상되는 감축량과 필요한 기후투자 규모를 제시함

- 지역난방을 담당하는 BEW는 2030년까지 연간 약 230만 톤, 약 50%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
- BEW를 제외한 공기업들은 클리마팍트에 포함된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자체 Scope 1·2 배출량을 연간 약 40만 톤, 약 25% 줄일 것으로 예상

⊙ 목표 달성 방식: 감축은 단계적으로 추진

- BEW는 석탄 사용 중단과 열 생산 방식의 전환을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예정
- 한편 베를린 에너지·전력망 지주회사(BEN)는 전력망을 확충하고 개선하여 열펌프,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전기 이동 수단의 대규모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통해 2035년까지 연간 약 290만 톤의 CO_2 배출 감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함

주요 내용 2: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규정

⊙ 기업에 대한 투자: 주의 공기업들은 2030년까지 기후 투자(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모든 조치)에 136억 유로를 계획했으며, 이는 기존 인프라 투자 전체의 약 51%에 해당

- 주정부는 9개 공기업에 약 23억 유로를 출자하여 투자하며, 소유주나 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함. 이때 이러한 자본금 출자는 자체 재원이나 차입으로 투자가 어려운 기업에 집중됨
- 자본 투입의 중점 분야는 지역난방(BEW)과 전력망(BEN)이며, 이는 이들 기업에서 가장 큰 탈탄소화 효과가 기대되고 다른 부문 탈탄소화의 전제가 되기 때문
- 기업별 목표는 앞으로 주정부가 공기업에 부여하는 소유주 목표에 반영

⊙ 투자지원 규정: 베를린주의 지원은 단순한 투자보조금이나 운영비 보조가 아니라

[표 1] 2025 – 2030년 9개 공기업에 대한 출자 계획

기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베를린 지역난방공사(BEW)	0.0	250.0	300.0	0.0	0.0	0.0	550.0
베를린 에너지·전력망 지주회사(BEN)	0.0	125.0	125.0	125.0	125.0	—	500.0
베를린 교통공사(BVG)	95.9	40.0	70.0	130.0	130.0	—	465.9
게보바크(Gewobag)	0.0	19.0	19.0	25.0	25.0	25.0	113.0
베를린 시영에너지공사	10.4	18.0	17.8	19.0	11.1	0.0	76.3
베를린 항만물류공사(BEHALA)	0.0	5.5	5.0	13.0	1.8	4.8	30.1
샤리테 대학병원	0.0	8.9	9.7	1.9	0.4	0.2	21.1
베를린 공공수영장공사(BBB)	0.0	14.1	48.6	52.4	45.0	43.9	204.0
비반테스 공공병원그룹	3.6	9.9	54.5	85.7	105.3	115.3	374.3
합계	109.9	490.4	649.6	452.0	443.6	189.2	2,334.6

주: 단위는 백만 유로, —는 자료 없음.
자료: 베를린주, Klimapakt 2025-2030(2026)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공기업의 소유주로서 자기자본을 출자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자기자본 출자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어야 하며 EU 국가보조금 규정에도 부합해야 함

주요 내용 3: 기후협약의 전망

⊙ 기술적 여건과 규제적 여건(예: 건물 에너지법, 연방정부의 지원 기회)의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기후협약에 제시된 계획은 주 공기업들의 경영 계획, 투자 계획 및 중기 계획 수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될 예정

⊙ 베를린주는 매년 각 기업의 자기자본 필요량을 검토하여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되 과도한 자금 공급을 방지함

⊙ 공기업의 CO_2 배출량은 앞으로 매년 주정부 출자기업 보고서(Beteiligungsbericht)를 통해 공개될 예정

시사점

⊙ 클리마팍트 기후협약은 주정부가 공기업의 소유주로서 배출량을 파악하고 목표와 투자 계획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탄소 감축 목표에 맞춰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 단순한 투자보조금이 아니라 베를린주가 소유주로서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출자한 자본의 경제적 가치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것으로, 기후목표와 공기업의 재정 및 경영관리를 함께 다루는 것이 특징임
- ■ 공기업의 배출량 산정·공개를 출자와 소유주 목표에 연계하는 방식은 다수의 투자·출연기관을 둔 서울시가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기후목표를 함께 관리하는 데 참고할 만함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https://www.berlin.de/sen/finanzen/vermoegen/beteiligungen/nachhaltigkeit/#headline_1_12
https://www.berlin.de/sen/finanzen/vermoegen/beteiligungen/nachhaltigkeit/nachhaltigkeitsbericht-landesunternehmen-2024.pdf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26/pressemitteilung.1637963.php
https://www.berlin.de/sen/finanzen/vermoegen/beteiligungen/nachhaltigkeit/klimapakt-2025---2030-vom-27126-_handout.pdf
https://www.berlin.de/sen/finanzen/vermoegen/beteiligungen/nachhaltigkeit/klimapakt-2025---2030-vom-27126-_oeffentliche-fassung.pdf